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부연구위원
kskwon@kiep.go.kr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전문연구위원
jokim@kiep.go.kr

박미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전문연구위원
misookp@kiep.go.kr

이시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연구원
suyi@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세계적인 자원난과 중동 사태로 자원개발 대안시장으로서 중남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안데스지역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대표적인 자원개발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매장량, 아홉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한 중남미 대표적인 에너지 부국임.
 -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중남미 양대 OPEC 회원국인 에콰도르도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임.
 - 볼리비아는 리튬(세계 1위), 안티몬(세계 3위), 창연(세계 3위), 주석(세계 4위), 텅스텐(세계 6위) 등 희소금속을 중남미 국가 중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 높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안데스 3개국은 좌파 정부 등장 이후 급진적인 자원국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시장으로 인식되어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외국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 스페인, 인도,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원 선점을 위해 다각적이며 적극적인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도 이 국가들의 높은 자원개발 잠재력을 인식해 다각도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지 진출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정부의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협력 전략 부재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3개국이 중남미 자원개발시장은 물론 세계 자원개발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협력 전략 수립을 통한 진출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경제적 리스크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개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현지 자원개발부문 진출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 제2장에서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개국이 갖는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경제 및 정치 환경으로 나누어 경제협력 환경을 살펴보았음.

- 먼저 안데스 3국의 정치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안데스 3국은 모두 정치 리스크가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목표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이해 집단의 반발 등에 부딪혀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실망감이 정치·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됨.
 - 특히 2012년 10월 대선을 치른 베네수엘라의 경우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정치 불안의 소재가 되고 있음.
 - 최근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Tipnis 사태처럼 안데스 3개국에서는 자원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원주민 및 환경 단체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음.
- 안데스 3국의 경제환경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안데스 3국은 일차산품에 대한 수출 및 재정수입 의존도가 모두 높아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 안데스 3국 모두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 정책으로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함.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일차산품 붐에 힘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로 안데스 3국의 경제기초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임.
-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3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자원부국이라는 점임. 먼저 3개국 중에서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음.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볼리비아와 중남미 양대 OPEC 회원국인 에콰도르도 자원개발 협력대상국으로서 가치가 큼.
 - 둘째,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성장세가 빠르다는 점도 이들 국가들이 가진 장점임.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현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안데스 3국은 평균 4%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셋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도 가치가 높음. 한국과 이들 국가의 분야별 발전 격차 및 대한(對韓) 협력 의지를 감안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의 여지가 큼.

● 제3장에서는 안데스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였음.

- 국별로 볼리비아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을, 에콰도르는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을, 베네수엘라는 시몬볼리바르 국가계획(PNDSB 2007~2013)과 2차 사회주의계획(2013~2019)을 집중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볼리비아와는 천연가스, 철도 및 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원, 전력·석유화학플랜트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에콰도르와는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IT 기술, 플랜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베네수엘라와는 자원개발, 정유·가스·전력 플랜트, 공동기금 조성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제4장에서는 안데스 자원부국에 진출한 중국, 스페인, 인도,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진출 사례를 개발협력, 산업기술협력, 자원협력, 금융협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먼저 스페인, 캐나다 및 브라질의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서는 다음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ODA 정책을 수립하고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캐나다와 브라질의 사례처럼 한국도 수원국 스스로 자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정책연구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와의 산업기술협력 사례를 통해서는 통신위성 개발 등 전략 분야에서 기술협력이 중요함을 일깨움.
 - 따라서 우리나라도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추진 시 과급효과가 큰 산업기술협력을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도와 미국 기업의 자원개발 사례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음.
 - 먼저 인도 기업인 진달(JSB)의 볼리비아 진출 사례는 투자 결정 시 사전 타당성 분석의 중요성을 일깨워줌.
 - 다음으로 미국 세브론의 베네수엘라 석유시장 진출 사례는 안데스 좌파 국가에서 CSR 활동이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시켜줌. 따라서 우리기업들도 이들 3개국 시장 진출 시 CSR 활동을 필수적인 투자요소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금융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서 발주되는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금융조달에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임.
 - 둘째, 자금조달 구조에서 안데스 3국은 비교적 뚜렷한 차이점을 갖고 있음.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국가의 직접적인 투자비중이 높은 데 반해 에콰도르는 민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큼.
 - 셋째, 안데스 3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 여부, 해외시장 진출 경험 및 기술수준 등을 제외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이나 자금추선 능력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음.

● 제5장에서는 한국과 안데스 3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개발협력, 제도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였음. 특히 여기서는 SWOT 분석에 기초해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먼저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은 다음 다섯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와 안데스 3국과의 교역관계는 아직까지 미미하며 대한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특징을 보임.
 - 둘째, 투자 측면에서도 안데스 3국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임. 투자 규모도 미미하고 투자 분야도 매우 제한적임. 특히 안데스 3개국이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분야에 대한 투자는 볼리비아를 제외하고 전무함.
 - 셋째, 열악한 투자환경에서도 건설플랜트 부문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은 최근 들어 활발한 편임. 그러나 안데스 3국의 투자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임.
 - 넷째, 안데스 3국에 대한 개발협력은 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된 볼리비아에 편중되어 있음. 2010년 이후 볼리비아, 에콰도르와 KSP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베네수엘라는 아직까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협력 기반도 아직까지 크게 미흡함. 이는 지금까지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정부의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임.
- 안데스 3국에 대한 경제협력 환경의 SWOT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안데스 3국 경제협력 환경의 SWOT

SWOT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강점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세계 최대 리튬 보유 - 높은 성장성과 거시경제적 안정 - 비교적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 풍부한 자원 보유 - 중남미 양대 OPEC 회원국 - 높은 성장성과 거시경제적 안정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세계 최대 석유매장 보유국 - 비교적 양호한 거시경제지표
약점	- 일차산품에 대한 높은 수출 및 재정수입 의존도 - 높은 정치사회적 불안 -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로 투자환경 악화	- 일차산품에 대한 높은 수출 및 재정수입 의존도 - 높은 정치리스크 -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로 투자환경 악화 - 가장 최근 외채 디폴트 선언에 따른 대외신인도 악화 => 해외자본 차입 차단	- 일차산품에 대한 높은 수출 및 재정수입 의존도 - 높은 정치리스크 - 계속된 국유화정책으로 투자환경 악화 - 높은 인플레이션 - 과도한 외환통제, 낮은 대외신용도 - 경제정책의 일관성 부재
기회	- 정부주도의 국가개발계획 추진 - 일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 최근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진출 - 한국의 ODA 지원 확대 및 한국과의 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	- 정부주도의 국가개발계획 추진 - 일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 한국과의 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 - 한국과의 FTA 협상에 높은 관심	- 정부주도의 국가개발계획 추진 - 일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 MERCOSUR 정회원국 가입 - 최근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진출
위협	- 유럽발 금융위기 및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 - 자원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원주 및 환경단체의 저항 - 모랄레스 대통령의 3선 출마를 위한 개헌시도를 둘러싼 정치적 불안 고조	- 유럽발 금융위기 및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 - 자원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원주 및 환경단체의 저항 - 2013년 초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불안	- 유럽발 금융위기 및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 => 국제유가 하락 - 국내 생산기반 취약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가중 -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악화를 둘러싼 정치적 불안 - 반미 노선으로 미국과의 관계 악화 -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두 국가의 영향력 강화 - 민간부문의 투자 저조 - 베네수엘라-콜롬비아 간 국경분쟁

3. 정책 제언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제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함.
 - 경제협력 확대방안은 크게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1) 경제협력 방향

- 먼저,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의 주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되어야 함.
 - 안데스 3국의 정치·경제 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이들 국가와의 협력은 정부간 협력이 중심이 되고 민간기업의 진출이 뒤를 따르는 ‘선(先) 정부간 협력, 후(後) 민간기업 진출’ 전략이 필요함.
- 둘째, 한국과 안데스 3국간의 경제협력은 상호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함.
 - 헌법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고 주권과 자립을 강조하고 있는 안데스 좌파 국가들은 국가간 협력에서도 대등한 관계를 중시함. 따라서 양자간 경제협력은 상호 윈윈(win-win)하는 동등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 셋째, 협력의 범위 면에서 한국과 안데스 3국간의 경제협력은 포괄적 협력을 지향해야 함.
 - 안데스 3국이 자원부국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자원협력에만 초점을 맞춘 경제협력 전략은 현지국의 거부감을 살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 부담이 큼.
- 넷째, 국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먼저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을 통한 전면적이며 포괄적 협력이 필요함.
 - 둘째, 안데스 3국 중 중소득국이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가장 양호한 에콰도르는 폐쇄적인 좌파 블록(ALBA) 공약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안데스 3국 중 저소득국이며 자원개발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볼리비아와는 개발협력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협력 전략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은 우리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최근 우리기업들이 안데스 3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현지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시기가 되었음.
 -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현지 활동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2) 경제협력 확대방안

(1)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으로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산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삼각협력 모델 개발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등 여섯 가지 방안이 제시됨.
-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 △한·볼리비아 자원협력위회 구축, △양자간 경제공동위원회나 고위정책협의회 가동, △안데스 3국 국영기업들과의 신속한 MOU 체결, △ALBA와의 협력 채널 구축 등 양자간 협력위원회 설치 확대가 필요함.
 - 좌파 블록인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공약을 위해 우리나라와 FTA 협상에 우호적인 에콰도르와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산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 먼저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산업협력 채널로 양자간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ODA 및 KSP 사업 등을 통한 산업화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KSP 사업 추진 시 현지 사정에 정통하며 풍부한 개발 컨설팅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IDB, 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 중남미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등과도 공동으로 정책자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산업기술협력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협력기금 조성사업은 베네수엘라 등과 양자간 기금 조성, 안데스개발공사(CAF) 내에 기술협력기금 설치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안데스 3국에서 리스크 발발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분쟁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별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구축해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 현지 사정에 가장 정통한 CAF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무기로 안데스지역에서 대표적인 자금조달 창구로 부상했음. CAF는 중남미 지역개발은행 중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개발은행임.
- CAF와의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작지만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CAF를 우리기업에 알리고 협력 여건을 조성해가는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협력 여건 구축을 바탕으로 기술협력기금 출연, 정회원국 가입 등을 통해 CAF와의 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음.

● 삼각협력 모델 개발

- 안데스 3국과의 삼각협력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먼저 안데스 3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협력 파트너로 삼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임.
 - 즉 베네수엘라가 중남미지역 내, 특히 ALBA 회원국 내에서 갖고 있는 강력한 정치·경제적 리더십을 지렛대로 이용해 협력하는 방식임.
- 둘째, 중남미 국가 중에서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는 경우임. 이 중 대표적인 후보국은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쿠바 등을 들 수 있음.
- 셋째, 안데스지역 개발은행인 CAF와 협력하여 안데스 3국을 지원하는 경우임. 대표적으로 기술협력기금 출연을 들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음.

●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 안데스 3국내에서 우리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지속 및 확대를 위해 이를 전담할 ‘한국문화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과 정부의 ODA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IDB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에콰도르 정부와 합작 하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에콰도르 빈곤지역 청소년 대상 관현악단 교육사업’을 볼리비아 등으로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거점화(Hub&Spoke) 전략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제안됨.
-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 안데스 3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외교부 등 정부 부처, 현지 대사관 등 공식적인 정부채널을 거쳐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원협력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협력 기회 발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우리기업들이 안데스 3국 시장 진출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고려해야 할 요소임.
-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 강화
 - 안데스 3국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게 CSR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 따라서 진출 초기부터 CSR 활동을 투자 진출의 한 요소로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CSR 사업 추진 시, 진출 기업 단독으로 수행하기보다는 KOICA, 수출입은행 등 정부기관, CAF, IDB 등 중남미지역개발은행 등과 협력하여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거점화(Hub&Spoke) 전략
 - 언어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이념적 유사성이 높은 안데스 3국의 특성을 살려 진출 초기부터 거점화(Hub&Spoke) 전략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안데스 좌파 국가 내에서 평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젝트 완공 이후 AS 등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음.
-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 안데스 금융조달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협력 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공동기금 같은 협력기금 설립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둘째, 중국·일본의 기업 및 은행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함.
- 셋째,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지역개발은행의 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넷째, ECA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 다섯째, 국제기구나 환경기금을 관리하는 국제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